산업통상자원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9. 27.(화) 06:00 < 9.27.(화) 석간 >	배포 일시	2022. 9. 26.(월)	
담당 부서	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	책임자	과 장	김재은 (044-203-4420)
		담당자	사무관	최정연 (044-203-4422)

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범정부 협의 본격 착수

- 9.23(금) 경북도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이어 9.27(화) 관계부처 논의 -

- 산업부 · 기재부 · 중기부 · 고용부 · 금융위 · 국토부 · 행안부 등 참여 -

- 9.28(수) 현장 실사 후 조속히 지정 여부 결정 계획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)는 **포항시에 대한 "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"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**하기 위해 **9.27(화)**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다.

<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제1차 검토회의 개요 >

□ **(일시)** '22.9.27(화) 10:00~11:20 /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회의실
□ **(주재)**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
□ **(참석)** (부처) 기재부·행안부·고용부·국토부·중기부·금융위, (지자체) 경상북도·포항시, (전문가) 산업연구원·대구경북연구원

□ **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**은 **예상치 못한 대·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**되는 경우에 **시·도지사의 신청**에 따라 **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(위원장: 산업부 장관)의 심의**를 거쳐 지정되는 것으로,

* 산업위기대응심의원회 : (위원장) 산업부 장관, (위원) 기재부·행안부·고용부·국토부·중기부·금융위 차관(6명) 및 민간위원(8명)

○ **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**하기 위한 제도로서 **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**이다.

* 근거법 :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('22.2월 시행)

* 참고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력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 영향이 가시화되었을 경우 지정되며, 그간 ①군산, ②울산 동구, ③거제, ④창원 진해구, ⑤통영·고성, ⑥목포·영암·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음

□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**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**한바 있으며, **경상북도**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**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**에 따라 **9.23(금)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**하였다.

○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경상북도는 주로 포스코 **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**으로 하는 피해기업 **금융지원**, **긴급 인프라 복구**, **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**, 기술·품질 고도화를 위한 **시설·장비 구축**, R&D 등 27개 지원 사업(총 1조 4천여억 원 규모)을 요청하였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① **포항시 철강업계 피해 상황 공유**, ② **지정 필요성 및 지원 내용**에 대한 소관 부처별 검토, ③ **향후 추진 일정**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, 전문가와 함께 **현장 실사(9.28(수))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**할 예정이며, **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확정**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